

## 인 사 말

한 해의 덕화로 일구어낸 저마다의 결실을 가지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나눔의 길을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스님들과 불교포럼 회원님, 그리고 후원자와 내외귀빈 여러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 사회는 지금 심각한 양극화 현상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은 늘어나고, 청년들은 취업과 비정규직 같은 고용 불안으로 힘들어 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고통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의 저변에는 우리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무엇이든 많이 쟁취하고자 하는 개개인의 끝없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름다운동행의 실천은 단순히 나누고 베푸는 활동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을 스스로 돌아보고, 주변의 모든 존재들이 본래 평등한 청정 부처님이라는 본원적인 회복을 추구하는 일종의 정진입니다. 연기의 세계관을 깨달아서 이 땅에 평화와 행복을 구현하자는 부처님의 대비원력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출범 네 번째 해를 맞는 아름다운동행은 인성이 지닌 존엄성과 가치를 빛나게 하고 무주상의 나눔을 생활화하며, 십시일반 나누는 공동체를 실현하여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결연한 의지와 목표에 기꺼이 동참하기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나눔결사의 실천자인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이 자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진력하신 불교포럼과 불교방송 관계자들에게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나눔으로 생명평화공동체가 더없이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서로의 선업으로 힘차게 전진하기를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